
제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최식

일시 1957년4월10일(단기4290년)(수) 상오10시50분

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

(10시 50분 개식)

○간사장 신용석; 지금부터 제9회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일동 국기경례와 애국가제창을하다)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말씀이 게시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오늘 제9회임시회를 개최함에 제하여 소감의 일단을 소문의일부를들어 이기회에 식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서울특별시의회가 7개월경과했습니다. 여러의원동지께서 각부문에걸쳐 많이 연구도하시고 노력 많이하신것을 우리일동뿐만 아니라 시민이 전부다 알고 거기에 여러가지로 평판한얘기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오늘개회식에 임해서 이사람이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또는 소문의 일부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날이갈수록 일이 차차 나아진다는 것은 우리인생행로에 대해서 반드시 누구든지 기대하는일이 고 반드시 그렇게된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개월경과한 오늘날 여러가지사정으로 우리 의원동지가 아직 의회생활에 미숙한점도 있겠지만 좀더 진지하게 성실하게 했으면 한다는 세평이 있는것을 들을때 우리는 특별히더 주의하지않아서는 안될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아직도 초창기니만큼 우리에게 대해서 애로가 많습니 다만은 우리각자최초에 이의회에 모아가지고 결심하고 서약 하든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시종일관으로 진행된다면 절대로 세평이 여하했든지 우리마음을 금하지말고 그대로 성실하게 견실하게 나아갈줄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각자가 서로말하기 거북한점도 있고 하기 까닭에 특별히 내소감으로 이것을 말씀들이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세평에대해서 말씀으로 말하면 회의석상에 말하기 어려운점 많습니다 만은 우리47명의 의원이 일치단결해서 서울시 살림살이를 잘해나가는데 마음이 모아진다면 하등의 애로가 없을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해서 협동하는 싸움과 공사구별이 분명치 못한점이 더러 있어가지고 세상사람 그깊은 내용을 모르는사람이 여러가지로 평판을 하면서 말하기를 전부 일치행동을 안하고 그중의 몇사람의 부주의로해서 여러가지 불미한평판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우리본심은 그렇지않어도 세상사람의 이목이라는것이 역시 가릴수가 없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번회의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심의결정이 있어야될 단계인만큼 개인의 의견을 주장해서 개인 푸레이로 미시고 우리가 공동일치해서 옳은점을 발견할때는 자기사건이 좀 다를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네 따라서 심의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일로서 개회식을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 시장님의 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부시장 신용우; 시장님께서 지금 비행장에 나가셔서 제가 대신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제9회 임시회의 개회에 제하여 몇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고
저합니다.

자치행정 실시과정에 있어 中軸的역할을 하고계시는 여러
분의 협조아래 수도시정의 면목이 새로워져가고 있음은 우리
가 다같이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를 받고저하는 주안건은 4290년도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인 것입니다.

과반 통과시켜주신 4290년도 예산을 이제 경정코저 한것은
예산책정당초에 비해서 그후 제반사태가 변모진전하여가는데
발맞추어서 가일층 견실성있는 예산확립을 도모하여 복지행
정의 실효를 기하려는데 있는것임으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진지하신 심의를 받어서 금년 세간 살이가 견실하고
즐기있게 실천에 옮기도록 하여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합니다 만은 인사 말씀에 대합니다.

○간사장 신용석; 다음은 부의장께서 만세삼창을 선창해주시
겠습니다.

다같이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대한민국만세를 삼창하다)

이상으로서 제9회 임시회의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5분동안 휴게해서 곧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0분 폐식)
